

홍위, 단종에게

홍위야 안녕? 나는 네가 짧게나마 다스렸던 미래의 조선인 대한민국의 인천에서 살고 있는 13살 김민채라고 해. 그곳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아버지 세종대왕과 아버지 은종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니?

나는 네가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만큼 많이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먼저, 윤들이 가장 많이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이야. 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상도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에서 우뚝

솟을 수 있었어. 지금쯤 나는 개배하고 있겠지? 나도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또, 대한민국은 기술 또한 뛰어나. 누리호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는데, 성공하여서 현재 누리호는 마음껏

우주를 누비고 있다고 해. 이쯤되면 너도 마음놓고 미래의 조선에 대해 한없이 자랑해도

될것같아. 나는 어느 책 한권을 읽고 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되었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수험점정을 맡을 어른도 있었지? 홀로 넓은 조선을 책임지는 임무가

되어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한꺼번에 떠안은 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너에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나타라. 난 지금까지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께 여러방안

부렸던 것 같아. 무엇보다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너에게 엄청나게

튼튼한 힘이 되어주었을텐데.. 정말

안타깝다. 하지만 12살,

나보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짧은시간 동안이라도 현명하게 정치했던 것 같아서 삼촌인
수양대군만 아니었다더라면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을 이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 같아. 하루하루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날마다
남몰래 울어야만 했지? 아버지에게 고명을 받고 충신들로 인정받은 신하들이 너를
배신할까봐 두려웠지? 하나씩 차례대로 사라져가는 너의 편들을 바라보며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이 미웠지? 이제는 그 마음의 짐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그때 못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사랑도 듬뿍 받아서 대한민국을 빛내줘!
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던 일들을 많이 못해보았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했잖아? 이제부터 나랑 친구를 해보는 것은 어때? 비록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를 아껴주고 비밀도 나누면서 네가 원했던 것처럼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을 보내보자. 이제는 더이상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난 널 슬프고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지만은 않을거야. 그러니 너도 더이상 과거에서의 슬픔에 묻히지
말고 너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쳐보았으면 좋겠어.
나도 항상 너를 응원할게!

- 2022년 7월 24일

네의 첫번째 친구 민재가 -

